

아이의 손을 잡고 웃음 띠고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을 손등으로 쓱쓱 닦아낸다.

“어름 방학에 엄마 집에 또 올 거지?”
“응 ...! 또 만나.”
중효가 돌아선다.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 아이를 태운 택시가 가물가물
점이 되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발을
떼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을
내려다보니 도시는 어느새 칙칙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 빼곡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에서
잔잔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 그 안에 어느 가족의
단란한 저녁을 상상해본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어름 방학에 엄마 집에 또 올 거지?”
“응 ...! 또 만나.”
중효가 돌아선다.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 아이를 태운 택시가 가물가물
점이 되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발을
떼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을
내려다보니 도시는 어느새 칙칙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 빼곡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에서
잔잔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 그 안에 어느 가족의
단란한 저녁을 상상해본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아이의 이부자리를 봐주던, 너무나 당연해서
지루하기까지 했던 나의 지난날은 이제 남의 일이
되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 생각한다.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전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에게 아이를 맡겨둔 채 홀연히 제주로
떠나왔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아이의 심정
같은 건 내 안중에 없었다. 편하게, 재밌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며 내가 했던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이 있고,
내 아이의 눈물이 있다. 나는 일그러진 얼굴을
무르팍에 묻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뱉어낸다. 내
아이의 눈물과 바뀌 얻어낸 자유란 과연 내게
얼마큼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어름 방학에 엄마 집에 또 올 거지?”
“응 ...! 또 만나.”
중효가 돌아선다.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 아이를 태운 택시가 가물가물
점이 되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발을
떼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을
내려다보니 도시는 어느새 칙칙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 빼곡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에서
잔잔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 그 안에 어느 가족의
단란한 저녁을 상상해본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아이의 이부자리를 봐주던, 너무나 당연해서
지루하기까지 했던 나의 지난날은 이제 남의 일이
되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 생각한다.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전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에게 아이를 맡겨둔 채 홀연히 제주로
떠나왔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아이의 심정
같은 건 내 안중에 없었다. 편하게, 재밌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며 내가 했던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이 있고,
내 아이의 눈물이 있다. 나는 일그러진 얼굴을
무르팍에 묻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뱉어낸다. 내
아이의 눈물과 바뀌 얻어낸 자유란 과연 내게
얼마큼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발행일 2026년 5월 11일
글쓴이 고구말랭이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은 jagunbae.com에서 확인하세요.

“어름 방학에 엄마 집에 또 올 거지?”
“응 ...! 또 만나.”
중효가 돌아선다.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 아이를 태운 택시가 가물가물
점이 되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발을
떼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을
내려다보니 도시는 어느새 칙칙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 빼곡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에서
잔잔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 그 안에 어느 가족의
단란한 저녁을 상상해본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아이의 이부자리를 봐주던, 너무나 당연해서
지루하기까지 했던 나의 지난날은 이제 남의 일이
되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 생각한다.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전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에게 아이를 맡겨둔 채 홀연히 제주로
떠나왔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아이의 심정
같은 건 내 안중에 없었다. 편하게, 재밌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며 내가 했던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이 있고,
내 아이의 눈물이 있다. 나는 일그러진 얼굴을
무르팍에 묻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뱉어낸다. 내
아이의 눈물과 바뀌 얻어낸 자유란 과연 내게
얼마큼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집에 가는 길

고구말랭이

